

■ ‘정화와 개혁을 너머 이제는 정법의 시대’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 걸어간다

‘불교신문은 한국불교 현대사’ ... 창간 50주년 ‘다짐’

불교신문이 창간 50돌을 맞았다. 1960년 1월 1일 첫 호를 내보낸 이래 이번 신문까지 모두 2670호를 발간했다. 불교신문의 기록은 모두 한국불교 현대사다.

1960년 종단이 위기에 빠졌을 때 ‘불법에 대처승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순교(殉敎)를 각오하며 불법을 지켜낸 비구승들의 모습에서부터 통합종단 출범과 종단 3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던 광경, 군승과견, 월남에 파견된 우리 장병의 신행 활동 모습,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우리 말대장경 발간, 역경원 출범과 역경사 양성 등 1960~1970년대 걸어난 발자취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1980년대 종단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던 종단 상황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도심포교 선구자들의 헌신, 1990년대 종단개혁과 그 이후 전개되던 교육, 포교, 사회화의 움직임 등 불교신문은 종단과 함께 영육의 반세

기를 걸었다. 한글 불교책이 태부족이던 시절, 불교신문은 훌륭한 교리 교과서였으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야할 길을 제시하던 사상서였다.

불교신문은 정화(淨化)의 산물이다. 일제 잔재이던 대처승제도를 없

‘종단과 영육의 반세기’ ...
이제는 信解 겸비 통일된
불교관·수행관 이끌어야

애고 부처님 법에 합당한 종단을 만들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조계종이 출범했고 그 종단의 뜻을 뒷받침하기위해 불교신문이 태어났다.

정화의 깃발이 오른 지 40년이 되던 해, 1994년. 이번에는 개혁(改革)이라는 이름 아래 못다한 정화 과제를 실

현했다. 승가교육을 강화하고 신도포교에 발벗고 나섰으며 소홀히 했던 복지 등 사회문제에 눈뜨기 시작했다. 정부와 오랜 유착관계를 끊고 대등한 위치에 섰다. 그러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교의 위상이 향상되고 역할이 커졌다.

정화와 개혁으로 대표되는 지난 50년간 한국불교는 내부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사회적 위치도 상당부분 회복했다. 한국불교 앞에 놓인 과제는 지난 50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민주화 시대 세력 싸움도 저물었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끼리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인드라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식을 특정집단이 점유하는 시대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하는 정보의 민주화·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종교의 특수성, 성직자의 우월성은 세력이 아닌 오직 도덕성과 종교 본래의 길을 걷는 종교교 그 자체로만 존경받는 시대가 왔다.

정화와 개혁을 너머 이제는 정법(正法)의 시대다. 정화와 개혁은 우리 내부의 제도 정비였다.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을 대화와 설득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삶이 곧 전법이고 수행이었다. 홀로 산속에서 고요히 침잠하지도, 세력을 형성해 다른 종교와 맞서지도 않았으며 문제가 있는 곳이면 전쟁터든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 오직 법(法)에 입각해 설득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정화와 개혁을 넘어선 정법의 시대는 결국 ‘부처님 법’대로이다. 1945년 해방 후 눈썹은 수화들이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결사에 들어갔듯 정법의 시대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걸어가신 삶 그대로 살 뿐이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개미마을로 이어지는 ‘자비의 손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한 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유관기관의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연탄과 쌀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개미마을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은 홍제동 개미마을 입구까지 배달은 연탄과 쌀을 가정마다 직접 배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말 보다는 몸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관련기사 12면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창간50주년’ 축하 범위

사부대중의 ‘오십년지기’ 로다

개인에게
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대중은
신문이란 또다른 제3의 눈이 필요
하다.



도림법전 대종사
조계종 종정

불교집안 역시 스스로를
비취볼 수 있는 거울을
모두 갈구하더니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손으로
1960년 불교신문이
창간되었다.
이후 사부대중의 오십년지기(五
十年知己)가 되었으니
서로에게 지음자(知音者)로다.

반백년동안 대중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또 목탁이 되어
세존의 가르침을 날로 새롭게 만
들어 지방세계를 밝혀 왔으니
이 어찌 참으로
무구(無垢)한 고경(古鏡)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고금(古今)이 있지만
법(法)에는 옛과 지금이 없듯이
불교신문 역시

어제와 오늘이 있지만
원음(圓音)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시차(時差)가 없구나.

희(噫)라!
여래의 연설은 항상
같은 말씀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말하셨고
귀 열린 대중 역시 들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들었으니
황금적축(黃金赤軸)은 그 자체로
또다른 신문(新聞)이로다.

2554(2010) 만추지절(晩秋之節)에

“10·27법난 피해 국가가 배상”

해성스님, 3억 손배소 승소
“후속조치 필요” 종단 논평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불교계가 무참히 유린당한 10·27 법난의 대표적 피해자인 해성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25부(법관 조원철·박지현·박규도)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해성스님)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선사 회주 해성스님은 지난해 5월 “10·27 법난 피해를 배상하라”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내용이 확정된다. 소송실무를 맡은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이근우 원장은 “법난이 발생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난

2007년 10월 국방부의 법난 관련 발표를 기점으로 시효를 인정받아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보상 문제가 빠져 있는 기존 10·27관련법이 잘못이라는 것이 법원 결정을 통해 명백해졌다”면서 “국회나 국방부가 보상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일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수 기자 soollee@ibulgyo.com

“세계국가 도약에 역할 해주길”

이명박 대통령, 본지 창간50주년 축하메시지

본지 창간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한다”며 “그간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오신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불교는 나라의 중대사마다 국민의 힘을 모아냈다”며 “불교신문도 부처님의 원용의 지혜를 사회에 널리 전하며 위기 때마다 하나된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희망을 주는 역할에도 충실히 왔다”며 “이런 노력으로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질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로우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11~12일)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바,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신 부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G20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교신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시지 전문
www.ibulgyo.com>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발했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이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후(11월

11~12일)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바,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신 부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G20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교신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시지 전문
www.ibulgyo.com>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창간50주년 특집...60면 발행

2면

사상 첫 검찰불자회 창립

25면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종정 도림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충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